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기도

전능하시며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악된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할 뿐 아니라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사에 감사하게 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천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시편 106:1)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제 1410호 2012년 11월 17일 (토)
 사시 :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크리스천의 감사

“없을 때 더욱 감사하라!”

2012년 추수감사절, 첫 번째 추수감사절 의미 통해 풍성한 감사 나눠야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며 미디어들이 단골로 다루는 내용들이 있다. 추수감사절 날 가족친지들이 둘러앉아 먹고 맛있는 음식 만드는 법, 그리고 푸짐한 명절음식 즐기면서 살 안짜는 법 등이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자정부터 시작되는 최대 소풍 축제인 '블랙 프라이데이' 선전과 홍보로 온통 들쭉거리다. 한마디로, 먹고 싶은 욕심과 빼고 싶은 조바심 그리고 가지고 싶었던 가전제품이나 의류들을 미리 결정하는 그런 구매 욕구 사이에서 마음 편할 날 없는 계절이 찾아왔다.

1621년 초가를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서 가진 첫 추수감사 모임은 사실 먹고 마시며 물건을 구입하는 축제가 아니었다. 1620년 12월 엄동설한에 플리머스에 도착한 그들에게 미국은 풍요의 땅과는 거리가 멀었다. 미국에서의 첫째 그들은 거처할 오두막 보다 7배나 많은 무덤을 만들어 혹독한 시련을 견뎌야 했다.

메이플라워에 함께 올랐던 어린이와 어른 102명 중 절반이 죽고 겨우 53명이 남은 첫 추수에 그들은 감격하며 기도와 금식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 미국 역사상 아마도 가장 가진 것 없었을 그들이 감사의 전통을 만들었다는 사실에 감사의 참의미가 담겨 있다.

은 이가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있으니”라는 플라톤의 말이 요즘처럼 실감나는 적도 없다. 감사와 추수의 의미를 되새겨보지 않을 수가 없다.

감사는 잃은 것 못 가진 것에 눈감고 가진 것을 보는 자세이다. 이미 잃어버린 것에 연연해

서는 미래가 없다. 초라해서 더욱 값졌던 수확, 무엇보다 단지 살아있음에 감격하던 청교도들의 감사가 좋은 표본이다. 가족, 건강, 생명... 가진 복을 세어보는 아름다운 전통이다.

(14면으로 계속)

제 28회 세계한인목회자 및 평신도지도자세미나

주제: 들으라 이스라엘! “Hear, O Israel”
 생명의 말씀을 Word of Life to
 자녀들에게 (신 6:4-9) Our Next Generation!

▶ 일 시
 2013년 4월 9일(화)~4월 18일(목) (9박 10일)

▶ 세미나장소
 Ramada Jerusalem Hotel
 Ruppin Bridge At Herzl Blvd., Il-91033, Jerusalem, Israel
 Phone:972-2-6599999 Fax:972-2-6511824

- 참석대상
 1) 전 세계에 계신 현직 한인 목회자, 선교사, 전도사 부부
 2) 평신도 지도자 (장로, 권사, 집사)
- 등록비
 세미나와 성지순례 9박 10일 숙박 등록비: 1400불
- 항공료: 별도로 개인부담
- 등록마감: 2013년 2월 28일
- 등록신청
 - Online : 신청: http://www.chpress.net
 - NY사무실: ny@chpress.net / Fax.718.886.0074
 노선희 전도사: shknoh@gmail.com / TEL(718)886-4040
 - LA사무실: la@chpress.net / Fax, 323.665.0046
 이성자 전도사: TEL.(323)665-0009
 - 한국연락처: 설철호목사(schgil@hanmail.net)
 Edunext Education Development
 TEL. (02)583-9136~8 / Fax 588-0709

 2면 감사절 설교 김남수 목사(아가페장로교회)	 3면 2012대선 복음주의 패배... '문화전쟁' 본격화	 7면 성경적 신앙전수의 원리 (3) 김혜천 목사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본사방문 다민족 열린 음악회를 꿈꾸며... 추수감사절 연합예배를 ...	 본사방문 다민족 열린 음악회를 꿈꾸며... 추수감사절 연합예배를 ...	14면
---	--	---	---	---	-----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2013년도 목사 학력 및 고시 공고

The General Assembly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2013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ination Announcement

2013년 5월 시행될 “목사 학력 및 자격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아래 요령과 같이 지원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와 시험은 한글과 영어 중 편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 응시 자격 (Candidacy Qualification)**
 본 총회 직영 신학교 및 총회가 인준한 정규 신학교 M.Div 학위를 졸업하였거나 2013년 6월 이전에 졸업 예정인 분으로 개혁신앙의 신앙이 투철한 무후 입교인으로서 확실한 소명과 영적 지도력을 가진 분
- 2. 고시 일자 및 장소 (Examination Date and Place)**
 1) 고시 일자: 2013년 5월 17일(금) ~ 20일(월)
 2) 고시 장소: The Westin Los Angeles Airport (310-216-5858)
 5400 W Century Blvd, Los Angeles, CA 90045
- 3. 고시 과목 (Examination Subjects)**
 1) 필기고시: (1)교회사 (2)조직신학 (3)미국장로교회사 (4)헌법 (이상 4과목)
 2) 제출고시: (1)구약주해 (2)신약주해 (3)논문 (4)설교원고 (이상 4편)
 제출고시 내용
 (1) 구약 주해 - 야모소 9:11-15
 (2) 신약 주해 - 마태복음 16:13-20
 (3) 논문 제목 - 쥘기세포 연구 및 적용에 관하여 개혁신앙의 관점에서 논하시오
 (4) 설교 분문 - ① 신약: 누가복음 9:23-27
 ② 설교원고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
 ③ 필기고사 당일에 본인이 선택한 분문을 중심으로 설교원고교사를 치름
 (5) 제출고시 과목에 관한 요령 - 주해 및 논문은 아래 지침에 따라 작성하되, 한 부는 인쇄하여 제출하고, 한 부는 PDF 파일로 서기에게 이메일 할 것.
 1. Letter Size(8 1/2 x 11)용지를 사용 할 것.
 2. 한글 11호 크기의 글자를 사용하되, 줄 간격은 180% 간격으로 (영문 12호 Double Space) 작성할 것.
 3. 논문과 주해는 각각 25개 내외로 작성하며, 설교원고는 30분 분량의 원고
 4. 논문과 주해는 논문작성 원칙에 따른 것이며 인용구는 각주를 사용할 것
 5. PDF 파일을 보낼 때는 주제 이름을 파일 이름으로 사용할 것
 3) 면접 고시
- 4. 응시 서류 (Accompanying Documents)**
 1) 신학교 졸업 증명서 또는 2013년 8월 이전 졸업 예정 증명서, 학교장 확인서 중 1부
 2) 신학교 전 과정 성적 증명서 1부
 3) 소속 노회장 추천서 1부
 4) 소속 노회 목사 후보생 증명서 1부
 5) 이력서(자세한 신력을 기재해야 함) 1부
 6) 명함판 사진 2장
 7) 고시료: \$150
- 5. 서류 제출 요령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1) 모든 응시 서류 및 제출고시 과목원고는 2013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함
 (2013년 3월 31일자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은 유효함. 그 이후는 접수하지 않음)
 2)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합격자 발표는 37회 총회기간(5월 21일~23일) 중에 합격증서 수여와 함께 함
- 6. 참고 사항 (Miscellaneous Information)**
 1) 고시생은 고시부 서기 허상희 목사에게 속소를 예약할 것 5월 17일~21일까지
 2) 고시 당일 Notebook 컴퓨터를 사용하여 고시를 볼 수 있으나 아래 사항을 지킬 것
 1. Word Process 이외의 모든 program은 고시 장소에 들어오기 전에 지울 것
 2. 시험 중에는 화면을 절대로 바꾸지 말 것. 허락없이 화면을 바꾸면 퇴장당함.
 3. 프린터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책임지고 준비할 것.
- 7. 응시 서류 및 제출 과목 원고 제출처 (Submission Address)**
 고시부 서기: 허상희 목사 (Rev. Samuel Heo) / Email : sheo1004@hotmail.com
 495 Morse Ave Ridgefield, NJ, 07657 / Cell : 201-981-0009
- 8. 기타 문의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1) 고시부 부장 : 송찬우 목사 (425)773-0504 (chansong_hase@hotmail.com)
 2) 고시부 서기 : 허상희 목사 (201)981-0009 (sheo1004@hotmail.com)
 3) 영어권 안내 : 김지영 목사 (949)735-4905 (pastorjames@jubileepci.org)
 최해근 목사 (267) 471-7777 (hankschoi@gmail.com)

총회장 : 김남수 목사 서기 : 이원호 목사 고시부 부장 : 송찬우 목사 고시부 서기 : 허상희 목사

감사 시

감사의 꿈



최세용 장로
(나성영락교회)

세월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무리들
마른 땅 밟고 뜬 꿈으로
온 종일 몸부림친다

그래도 단풍의 계절은
결실을 안겨주는 귀한 시간

높가에 살포시 내려앉은
낙엽의 흐느낌 들리지 않는가
깃가에 흐르던 세월의 교향악
피부에 스치는 애증의 감각들

오로라 빛보다 찬란한 풍경 앞에서
세월의 병풍에 그려진 사연들을 본다

해안선마저 무너뜨리는 용암의 폭발
폭풍우와 공포의 해일,
마른 땅까지 꺼져버리게 하는
오 무서운 지진의 공포,
증오의 역사가 뿔어대는
미움의 독설과 총탄들...

한 순간도 은혜 아니면
살아남지 못하는 세월이여

텅 빈 마음에
이 가을 찾아온
단풍잎들만큼이나
감사가 풍성했으면

오늘도 나는 꿈을 꾸어본다.

감사절 설교

“여호와께 감사하라”

(시편 107편1-9)



김남수 목사

(KAPC 총회장, 아가페장로교회)

없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과 천국으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른길로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7절).

“또 바른길로 인도하시라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는 지난 생애를 돌아볼 때 여러 갈래의 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르게 인도해 주셨기에 이곳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바른길로 우리를 인도해주셨고 또한 가장 안전한 지름길로 인도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은 안보이고 삶은 어렵고 갈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절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날을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인생의 굽이마다 어려운 모퉁이마다 하나님의 인자한 손길과 따뜻한 보살핌이 있었음을 감사하며 지금도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름은 부모님과 형의 낯을 피하여 외삼촌 집으로 가서 오랜 기간 살다가 고향 가까이 왔으나 하나님과 굳게 약속한 벨렐로 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벨렐로 올라가라 그리고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5장3절에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벨렐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노라”라고 말합니다. 아람은 알았습디다. 지난날 어려울 때나 환난의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어렵고 힘든 일이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의 해군장교였던 가와가미 기이치는 일본의 패망을 보며 낙심한 가운데 목 아래로 마비가 되어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신과 의사 후치다의 진료를 받게 되었는데 하루에 만 번씩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어느날 막내 아들이 감 흥시를 따서 “아버지 감 드세요” 하며 드릴 때 기이치가 “감사합니다” 하면서 손을 내미는 손이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풍성한 식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9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된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말씀은 영혼의 만족도 말씀하지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주님께서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실컷 마시게 하시고 배고픈 사람에게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게 해주셨다. 그렇습니다. 지금이 시간 감사해야 할 것이 많지만 풍성한 영혼의 양식과 아울러 좋은 음식을 넘치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미국 같은 최 선진국에서도 3천4백여만 명이 굶주리고 있다고 합니다.

다. 조국 대한민국은 역사 이래 가장 잘 사는 때라고 합니다. 한번씩 한국을 가보면 정말 잘 먹고 잘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미국에 이민와 사는 우리들도 먹고 사는데 어렵거나 배고픈 분은 거의 없는 줄 압니다. 어떻게 하면 적게 먹고 몸무게를 줄이나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음식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먹어야 될 것입니다.

미국에 와서 사는 사람들, 대도시나 근교에 사는 우리들은 더욱 감사해야 합니다. 먹고 싶은 한국 음식이 원하는 대로 있고 좋은 것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산골 조그마한 한인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된장찌개 먹고 싶어서 3시간 거리에 있는 애틀랜타까지 식구들과 함께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왜 노스캐롤라이나 산골에 보내셨나 생각했었는데, 교우 중에는 거기에 서도 1시간 더 들어가는 산속에 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어진 환경과 삶에서 감사해야 합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11월 감사의 달 특히 감사절 주간에 바쁜 일상의 삶을 내려놓고 따뜻한 차 한 잔의 여유를 가지고 조용히 지난 시간들을 묵상해 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할 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식사 때마다 이런 기도를 드리면 어떻까요.

“사랑의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을 먹고 육신이 건강하고 믿음이 더욱 자라며 날마다 성령 충만한 생활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끼니 때마다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는 아내의 손길 위에 복을 주시며 우리의 공간이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식사 시간이 음식만 먹는 시간이 아니라 행복과 사랑을 나누어 먹으며 서로에게 힘을 공급하고 하나되게 하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길 바랍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323)665-0009(대표) (323)665-9025(광고국)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E-mail : la@chpress.net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준
편집국장서리:유원정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Fax:(718)886-0074(대표)
E-mail :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토폴은 요구하지 않으나 ESL과정 병행)
2.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인터넷 환경이 주어진다면 가능
3. 인터넷 환경이 잘 안되는 지역 혹은 어려운 조건에서는 별도 교육방법
3. 지역별 교수의 만남을 통해 개인별 학업지도와 학업상담, 진로상담

Midwest 특징

1. 직장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에서나 On-Line으로 전 과정의 학점과 학위 취득
2. 미국 체류비자 발급, F-1 Visa 발급(동반 자녀는 공립학교 무료교육)
3. 수시 입학이 가능

* 자세한 문의는 전화(636)327-4645 또는 이메일 usa@midwest.edu로 연락바랍니다.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Site:
7620 Little River Tnpk # 400, Annandale, VA 22003
Tel: (703)626-8712, (571)730-4750 wdc@midwest.edu

“부름받은 사명위해 영적각성 힘쓰라”

10월 29-31일 KAPC 중남미지역 첫 목사장로기도회

중남미 지역에서 처음 열리는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김남수 목사) 목사장로기도회가 지난 29일부터 사흘간 브라질 지리버그스 빌리지 호텔에서 개최됐다. 브라질노회(부노회장 심석현 목

사) 주관으로 열린 기도회 첫날 예배는 오세훈 목사(총회교육부장) 사 회로 김성민 장로 기도 후 김남수 목사(뉴저지지가예장교회 담임)가 설교했다. 김 목사는 “일어나라 사명을 위하여”(왕상19:7-8)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부름 받은 자들이 사명을 다하기 위해 영적 각성에 더욱 힘써야한다”고 강조했으며 참석자들은 총회신앙 교회와 노회와 총 회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다.

저녁집회 주강사로 단에 오른 김 남수 목사는 “벨벳로 울리자”(창 35:1-5)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 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목회 경험을 전 하며 참석자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재무장게 했다.

둘째 날 아침기도회 역시 총회 장 김남수 목사가 “기도의 능력”(느 1:1-11)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 했으며 오전 특강 첫 시간에는 오 세훈 목사가 “그 시대의 영웅”(삼하 11:6-17절)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 하고, 둘째 시간에는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목사장로”(고전16:15-18)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므로 사명자들은 주님께 더욱 충성된 삶을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

오후 시간에는 족구와 게임을 통해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통해 주안에서 하나됨을 재확인했다.

이날 저녁집회는 김남수 목사가 “갑절의 영감”(왕하2:1-14)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합심 기도 시간에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눈물 흘리며 간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마지막 날 아침기도회 및 폐회에 배는 김남수 목사가 “복음의 일꾼 되자”(딤후4:1-8)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이번 모임의 취지와 목적을 확 실시하며 재무장하는 시간을 가졌 다. (기사제공: KAPC총회교육부)



뉴저지교협 주최 '어린이성경암송대회' 수상자들에게 상패를 전달하고 있다.

대상에 임아비가엘, 성은장로교회 뉴저지교협 '어린이 성경암송대회' 성료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간직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매년 가을에 개최되는 ‘어린이 성경암송대회’가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회장 박상현 목사) 제 26회기 출범 후 첫 번째 행사로 지난 11일 오후 5시부터 새언약교회(담임 김중국 목사)에서 개최됐다.

사모본과 주관으로 치러진 이번 행사에는 총 18개의 교회 약 200여 명의 인원이 참석했다. PK부터 5학년까지로 구성된 총 18명이 개인전에 출전했으며 단체전에는 10개 교회에서 약 80여명이 출전했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개인전 △면류관 대상: 임아비가엘(4학년, 필그림교회) △면류관 상: 조은희(5학년, 그레이스연합교

회), 이현명(1학년, 성은장로교회) ▲단체전 △대상: 성은장로교회 △최우수상: 평화교회 △대근감사패: 성은장로교회.

이날 행사에는 참가 어린이들에게 도전과 격려를 주기위해 지난 해 개인전 ‘면류관 대상’을 수상한 장수인 어린이(새동산장로교회)와 이동희 사모(새순교회)가 특별 출연해 성경 암송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대회에 앞서 정혜성 목사(CSO다라미)의 사회로 1부 예배에서는 회장 박상현 목사(소망교회 담임)가 “내가 좋아하는 성경 이야기”(민22:21-35)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헌금기도는 박근재 총무(시나브로교회 담임)가 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소중한 나눔 메마른 땅에 생수 나게”

소망소사이어티/굿네이버스, 차드 우물 2차원정대 발대식

소망소사이어티(대표 유분자 이사장)와 굿네이버스USA는 아프리카 차드 소망우물 2차 원정대를 위한 발대식 및 축복예배를 9일 오전 11시 소망소사이어티 내 소망홀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유분자 이사장은 “2년 전 아프리카에 가보니 매우 비참해 마음이 아팠다”며 “이번에 가는 차드는 아프리카에서 5번째로 못사는 나라다. 생명을 살려야 예수 믿게 하고 교육도 시킬 수 있다. 더러운 물을 마심으로 인한 최후의 영향으로 50세도 못돼 삶을 마감하게 된다. 우물을 통해 소망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굿네이버스USA에 의하면 현재 차드에 완성된 소망우물은 총 131개이며 15만명 가량이 이 물을 마

시고 있다. 이번 소망우물 2차원정대는 12일에 아프리카 현지로 떠나 1주일 동안 우물을 파는 일을 하고 돌아온다.

한편 이날 발대식 및 축복예배는 정영길 목사(소망소사이어티 이사)가 기도해, 김도민 목사(라팔마연합감리교회 담임)가 말씀을 전했다. 김재학 실장(굿네이버스USA)의 현황보고, 소망중장단이 축복 송을 불렀다.

이어 이번 원정대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브라이언 리브 감독이 “드롭박스 다큐멘터리”를 보여주고 나눔의 시간을 가졌으며 아프리카 차드 영상이 소개됐다. 이날 행사는 성영구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베데스다대학교 총동문회 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베데스다대학교 총동문회장에 최명상 목사

베데스다대학교 총동문회(회장 조영환 목사)는 지난 12일 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동문회장에 최명상 목사를 선출했다.

베데스다대학교(총장 진유철 목사)에서 열린 총회에서 최명상 회장은 “1년간의 동문회 회장임기동안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 동문회가 모교와 동문들을 위한 여러 사업구상을 하고 있다. 동문회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임원들과 함께 열심히 일하겠다. 동문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한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베데스다 동문회의 회장 임기는 1년이며 최대 4년까지 연임이 가능하다. 동문회는 앞으로 흠커뮤에 비 롯 동문주주목 발간 등의 사업 등을 펼쳐나가게 된다.

(박준호 기자)



LA기윤실 주최 건강교회 포럼과 사회봉사상이 CIU에서 개최됐다. (사진 왼쪽은 건강교회포럼 모습, 사진 오른쪽 위는 사회봉사상 수상자 국제결혼선교전국연합회, 사진오른쪽 아래는 방주교회).

LA기윤실 건강교회포럼 교회건축 진단

사회봉사상에 방주교회, 국제결혼선교전국연합회

LA기윤실(공동대표 허성규, 흥진관)이 주최하는 제13회 건강교회 포럼이 ‘교회건축을 진단한다’라는 주제로 8일 저녁 7시부터 9시30분 까지 캘리포니아인터내셔널대학교(CIU)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포럼은 손경호 목사(보스턴 성령교회 담임, 실행위원)와 조만연 장로(북부장로교회, 실행위원)가 강사로 나서 주제발표를 했으며 박문규 학장(CIU, 실행위원)의 사회로 이용욱 목사(하나크리스천교회 담임)와 송병주 목사(선한청지기교회 담임)가 패널로 나서 토론 했다.

박상진 간사의 사회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 ‘하나님 먼저, 건물 먼저?’라는 주제를 발표한 손경호 목사는 “오늘날 교회건축은 많은 부분 잘못된 동기로 실시된다”고 지적하고 “교회건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신약교회는 일정한 장소에서만 예배해야 한다는 제한적인 의미를 벗어났다. 일정한 장

소를 신격화하면 그것이 곧 우상숭배의 출발이다. 교회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장소이며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한인교회의 건축과 재정”이라는 주제를 발표한 조만연 장로는 “신약에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성도들이 모이는 공동체로서 더 이상 물리적인 건물을 가리키지 않는다. 예수는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곧 교회이며 자신이 교회의 머리라고 가르치셨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LA기윤실이 수여하는 사회봉사상에 방주교회(담임 김영규 목사)와 국제결혼선교전국연합회(담임 김민지 이사)가 받았다. 이상은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 봉사를 실천하는 교회, 단체, 개인을 알림으로써 나눔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정됐다. 수상자들에게는 상패와 상금 1천 달러가 수여됐다. (박준호 기자)



LA문화선교원 시전 주최 제6회 시로 드리는 예배를 마치고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LA문화선교원 시전, 제6회 시로 드리는 예배

LA 문화선교원 시전(대표 이민미 전도사)은 제6회 ‘시로 드리는 예배’를 10일 오후 4시 광명교회(담임 정우성 목사)에서 열었다.

이날 이민미 시인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미 시인”이라고 밝히며 “이번에 드려진 시로 드리는 예배는 제6기 LA 문화선교원 시전 회원들이 정성스럽게 써내려간 작품들을 중심으로 드려지게 됐다. 주로 삶속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이 시로 표현됐으며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나오게 돼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날 광문숙, 이영인, 현대식, 김영숙, 이은경, 정한나, 최장경, 이애미, 정문기 회원과 이민미 전도사의 시가 발표됐으며 김주경 시인과 백승철 목사가 초대패 시를 낭송하고 흑룡강성 북단에서 사역중인 윤일홍 목사의 시를 정문기 회원이 낭송했다. 또한 꿈이있는자유 정종원 목사(아이엠체치 담임)가 특송을 했으며 합창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백승철 목사의 격려사, 정우성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월드미션대학교 주최 제12회 뮤직페스티벌이 '모스크바의 밤'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월드미션대 음악과 제12회 뮤직페스티벌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송정명 박사)가 주최한 제12회 뮤직페스티벌이 ‘모스크바의 밤’을 주제로 10일 저녁 7시30분 중앙선교회(담임 박형은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뮤직페스티벌은 ‘모스크바의 밤’이라는 주제로 걸맞게 쌀쌀한 날씨 속에 열렸는데 러시아의 대표적인 작곡가인 글린카, 립스키 폴사코프, 무소르스키, 차이콥스키, 라흐마니노프, 그리고 쇼스타코비치의 중요 작품들이 연주됐다.

송정명 총장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린다. 감사의 절기에 하나님 뜻이 있어 23년 전에 이 학교를 세우주셨다. 550여명이 배출돼 목회자, 선교사, 평신도 지도자로 사역하고 있다. 음악과를 통해 이민사회에 필요한 음악인들이 배출됐다. 12번째 페스티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세계로 넘어가는 교회 동부(NY, NJ) 교회안내		기쁨과 영광교회 담임목사: 권희수 교무국장: 케미턴원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전 9:30 금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중·과) 오후 8:30(과)	낙원장로교회 담임목사: 황영진 주일1부예배: 오전 8:45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목회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9:30 새벽기도회: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45			
뉴욕갯마을교회 담임목사: 이저홍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45	뉴욕빌라렐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전 2:00(과)와(과) 수요일예배: 오전 8:30(과) 주일학교: 오전 9:00	뉴욕새사랑교회 담임목사: 이종범 주일예배: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예배: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30	뉴욕순복음안타독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30 새벽기도회: 오후 8:30(과)	뉴욕중부교회 담임목사: 김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45(중·과)	뉴욕주요교회 담임목사: 김승희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8:00(과)
뉴욕효신장로교회 담임목사: 문석호 원로목사: 방지각 1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8:30 3부예배: 오전 10:15 4부예배: 오전 12:00 5부예배: 오후 1:30 6부예배: 오후 3:00 7부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새벽 6:30(중·과)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목회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예배: 오후 10:00(과)와(과) 수요일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30(과)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현 주일예배: 오전 10:30 목회예배: 오전 8:45 수요일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수요일예배: 오후 9: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콩아일랜드성결교회 담임목사: 김혁명 주일예배: 오전 11:30 목회예배: 오전 8:45 수요일예배: 오전 8:30 수요일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30	메디안교회 담임목사: 장동관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30 새벽기도회: 오후 8:30(과)	어린이양교회 담임목사: 김수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30(과)	유니온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박재현 1부 기도회: 오전 8:30 2부 기도회: 오전 8:30 3부 예배: 오전 10:45 4부 예배: 오후 2: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8:30
주비전교회 담임목사: 이규근 주일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회: 오전 6:30 목회예배: 오후 8:00	중부뉴저지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원호 주일예배: 오전 11:00 목회예배: 오전 8: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예배: 오후 9:30	윈즈장로교회 담임목사: 박규정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목회예배: 오전 11:00 목회예배: 오전 12:15 목회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8:00	윈즈한인교회 담임목사: 이규정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목회예배: 오전 1:30 목회예배: 오후 1:30	한마음침례교회 담임목사: 박파이름 주일1부예배: 오전 11: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전 8: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30(과)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합 후원교회들을 찾습니다 ■ L.A.: Tel: (323)885-0009 (323)885-0016, (323)885-0017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합 후원교회들을 찾습니다 ■ L.A.: Tel: (323)885-0009 (323)885-0016, (323)885-0017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넘어가는 교회 남미지역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허경남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40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용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8:45	브라질 새소망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주일학교: 오후 7:00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명연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6:00 주일4부예배: 오후 8:30 주일학교: 오후 12:30	칠레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황희상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9:00 수요일예배: 오후 9:30 주일학교: 오전 7:40 주일학교: 오후 8:00 주일학교: 오후 8:30(과)	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선교사: 임원근 목사 제1부예배: 오전 8:30 제2부예배: 오전 9:00 주일학교: 오전 9:30 주일학교: 오후 8:00 주일학교: 오후 8:00 주일학교: 오후 8:00 주일학교: 오후 8:00

동부교계 게시판

east

2012년 "세계 장애인의 날"

우리서로잡은손 국제장애인선교회(I.M.D)가 주최하는 2012년 "세계 장애인의 날" 행사가 12월 1일(토) 오후 2시, 루즈벨트 아일랜드 골드워터 병원 대강당에서 열린다. "장애인의 날 및 성탄절" 행사 겸 해 열리는 이번 행사는 동 선교회가 UN DPI NGO 단체로 활동하게 됨에 따라 4월 장애인의 날 "우리서로잡은손" 행사를 12월 세계장애인 의 날 행사로 하게 됐다. 장애인 병원 환자 400명, 봉사자 200명 총 600명이 참석하게 된다. 한편 동 병원은 2013년 문을 닫게 된다. ▲문의:(718)353-3791

청년연합집회 "Blessing New York"

청년연합집회 "Blessing New York"이 12월 7일(금)부터 9일(주)까지 뉴욕수정성결교회(담임 황영송 목사)에서 열린다. 뉴욕교협이 후원하는 이 집회는 뉴욕의 젊은이들이 신앙으로 바로 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영적 공부를 돕는 것이 목적이다. 청장년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집회 강사는 박수영 장로(자마, 코스타 강사)로 세미나와 집회를 통해 심층적 메시지가 전파된다. 일정은 금, 토요일 오후 8시, 주일은 오후 6시부터. 베이비시팅들이 준비되며 사역자/사역팀 부스를 설치해 각 사역을 홍보할 수 있다. ▲문의: info.planplay@gmail.com

뉴비전 청소년커뮤니티센터 군고구마 후원

뉴비전 청소년커뮤니티센터(대표 채왕국 목사)가 이번 겨울에도 군고구마 후원을 시작한다. 필리핀과 아한아마켓 앞에서 군고구마를 판매해 중독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 박스 35달러에서 10박스 300달러까지 후원금을 받고 있다. 동 센터는 중고 품가게(Thrift Shop)도 운영하고 있다. 다. www.nvcc.org ▲문의: (215)782 3789

뉴욕교협 39회기 출범...이취임식

김종훈 회장 "교계통합에 최선"

뉴욕교협(회장 김종훈 목사) 제 39회기가 지난 9일 이취임식을 마치고 출범했다. 이날 이미 발표된 임원진 외에 각 분과위원회 명단을 발표했다(표 참조). 1부 예배는 김승희 목사 사회로, 시무기도 이병홍 목사, 성경봉독 이대연 장로, 특송 에이레네중창단, 말씀 장석진 목사("능력자의 성공적인 사역을 위한 출발", 담전1:12), 헌금기도 박마이클 목사, 헌금특송 박성하 전도사, 축도 최예식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2부 이취임식은 현영갑 목사 사회로, 기도 최창섭 목사, 이임사 양승호 목사, 교협기 인수인계, 축사 한창연 뉴욕한인회장, 김형길 부총영사, 박상찬 뉴저지교협회장, 권병 방지각 목사, 취임인사 김종훈 목사,

이주의 장로, 위촉장 수여, 감사패 증정 등으로 진행됐다. 김종훈 목사는 "열린 귀를 가지고 여러 조언들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겸손히 섬기면서 이루기를 다시 한번 결심했다"며, 오후 8:29에서 근거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협"이라는 주제로 교협을 이끌어 교포 복음화뿐만 아니라 세계 복음화를 위한 교협으로 창조과학탐사여행 추진 △청소년센터 등 중심으로 한 다음세대 신앙전수 △사회적 현안 문제 관심 등에 대해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39회기 뉴욕교협은 총 86명에 이르는 임원회를 구성했다. 8명의 임원진 외에 12명의 협동총무, 분과위원장 34명, 특별위원장 28명과 3명의 감사, 이사장 등으로 역대 가장



뉴욕교협 회장단 이취임식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목사회 임원선거 후보자 번호추첨을 마치고 후보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목사회 임원선거 후보자 번호추첨

부회장 1번/황동익 2번/노인수 3번/김영환 목사

뉴욕목사회 임원선거 후보자 발표 및 번호 추첨이 지난 7일 플러싱 북장동순두부에서 열려 3명의 부회장 후보 중 1번 황동익 목사(뉴욕비전교회), 2번 노인수 목사(뉴욕불기동교회), 3번 김영환 목사(뉴욕효성교회)로 결정됐다. 회장후보는 최예식 목사(뉴욕복된교회). 선관위원장 신현택 목사, 서기 김홍석 목사, 선관위원 이철희 목사가 함께 한 자리에서 4명의 후보는 기자회견과 간담회를 가졌다. 선관위는 후보들의 학력, 학위에 관련한 서류사본과 이단행위 참여에 대한 해명 등에 대해 모든 준비를 마쳤으며 공명선거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현택 목사는 "선거는 공정해야 한다"며, "하나님께서 뉴욕목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해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또 '3진아웃(3

번 이상 후보로 나오지 못하는 것)에 대해 언급하며 "이번 총회에 선거제적으로 상정될 것"이라며 소급될 것인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라고 밝혔다. 다음은 각 후보 관련 정보다. ▲회장 후보 △최예식 목사(1947년생, KPCC): 넓은 포용력으로 좋은 영적 분위기를 조성하며 화합하는 목사회 ▲부회장 후보 △1번-황동익 목사(1946년생, ARPC): 좋은 관계유지, 목회자 개인발전 도모, 영적 회복 노력 △2번-노인수 목사(1948년생, 독립): 목사회 위상정립, 목사회를 안식처로, 목회정보제공 △3번-김영환 목사(1951년생, SBC): 회장 보조, 친목과 일치, 성령충만과 기도 <유원정 기자>

많은 임원으로 구성됐다. 한편 현영갑 목사(리빙스톤교회)와 김홍석 목사(뉴욕능력교회)의 이름이 명시된 탄원서가 지난 7일 김종훈 회장에게 전달됐다. 내용은 총무 현영갑 목사의 교체 건. 현영갑 목사는 지난 2년 동안 서기(37, 38회기)와 선관위원장(37회기)을 역임해 분열 분위기에 있었던 뉴욕교협의 핵심에 있었다. 39회기

임원	특별위원회	분과위원회
회장: 김종훈 목사(뉴욕예일장로교회)	자문위원회: 방지각 목사	신교분과: 김수태 목사
부회장: 김승희 목사(뉴욕초대교회)	장학위원회: 양승호 목사	교육분과: 박태규 목사
부회장: 이대연 장로(은혜교회)	지도위원회: 김해중 목사	목회분과: 이성현 목사
총무: 현영갑 목사(뉴욕성물장로교회)	선기관리위원회: 김원기 목사	원주민선교분과: 김기호 목사
서기: 장경태 목사(뉴욕소망장로교회)	협력위원회: 최윤열 목사	전교분과: 김태근 목사
부서기: 김성태 목사(주님의교회)	재산관리위원회: 이문구 목사	역사자료분과: 김연규 목사
회계: 이수원 장로(뉴욕순복음연합교회)	교관감독자위원회: 현재홍 목사	기도분과: 김명옥 목사
부회계: 정대영 목사(윈즈동부교회)	법규위원회: 이병중 목사	다민족분과: 안관현 목사
협동총무	결혼상담지도위원회: 김정국 목사	특별집회분과: 오태환 목사
양민석 목사(뉴욕한국인그레잇교회)	청소년지도위원회: 안창의 목사	사모분과: 김정신 사모
조병관 목사(뉴욕새하늘교회)	중재위원회: 장석진 목사	의료분과: 지인식 목사
황영송 목사(뉴욕수정교회)	해외선교위원회: 김남수 목사	동원분과: 박성원 목사
박태성 목사(뉴욕영광장로교회)	공로상포상위원회: 박희소 목사	사회분과: 홍영진 목사
조승수 목사(윈즈정교회)	인공위원회: 김영식 목사	홍보분과: 이종삼 목사
안승백 목사(뉴욕은유교회)	부총감사단위원회: 송병기 목사	음악분과: 유다윗 목사
박병준 목사(뉴욕신일교회)	지역협력위원회: 황동익 목사	장애인분과: 이철희 목사
김희복 목사(뉴욕만국교회)	목회연구원위원회: 최정호 목사	체육분과: 이창남 목사
김종환 목사(뉴욕그리스장로교회)	목회자복지위원회: 황경일 목사	여성분과: 윤숙현 목사
김요셉 목사(예수생명교회)	교단협력위원회: 김현태 목사	정보분과: 김현준 목사
전희수 목사(기쁨과영광교회)	이단대책위원회: 최정호 목사	국제분과: 박마이클 목사
백문현 목사(미주사랑교회)	미지교회위원회: 이승재 목사	심리분과: 김영환 목사
	대외관계특별위원회: 이희선 목사	유년분과: 김성은 목사
감사	목회사료위원회: 이만호 목사	상당분과: 김용국 목사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미디어위원회: 윤세영 목사	청년분과: 유승태 목사
김영철 목사(순복음중앙교회)	민족복음화위원회: 김재열 목사	영아권목회분과: 이재홍 목사
이광도 장로(뉴욕동부교회)	연합선교위원회: 이규성 목사	영점분과: 최요셉 목사
이사장	사업위원회: 이재택 목사	시설관리분과: 이은수 목사
이주익 장로(뉴욕예일장로교회)	신학유리위원회: 이광희 목사	전도분과: 한석진 목사
		행사협력분과: 유용진 목사
		교육사업분과: 유영석 목사
		기술지원분과: 김홍석 목사
		행정지원분과: 이영남 목사
		경조분과: 이영상 목사
		재해분과: 장재중 목사

애틀랜타지역교협 주최 이단대책세미나

한선희 목사, 신천지 신사도 인터콧 등 강의

애틀랜타지역교회협의회 주최로 지난 2일부터 시작된 '이단을 바로 알자'라는 주제로 가을특별성회를 열었다. 강사는 한선희 목사(미주기독교이단대책연구회장, 예장미주합동총회 이단대책위원장). 실로암한인교회(담임 신윤일 목사)에서 3일간 저녁집회와 오전에 목회자세미나가 있었으며 5일 오후에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선희 목사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애틀랜타 지역에 이단에 대한 상당한 경각심을 갖게 된 것에 대해 너무나 감사의 영광이요, 참석하여 다짐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교협 측은 "이번 세미나가 어느 개인이나 단체를 맹목적으로 비방이나 비난이 아닌 조목조목 파워포인트를 통해 그들의 잘못된 주장을 성경적으로 비교 분석해줌으로 쉽고 고도 바로 알 수 있게 했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통해 애틀랜타 지역에 경각심을 불어 넣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교협 산하 이단대책위원회 활동과는 별도로 전문 이단대책사역에 올인 할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한선희 목사가 강의하고 있다.

결의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일명 신천지): 최근 교회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교회가 분열되고 가정이 깨지는 등 그 피해가 감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신사도운동(New Apostles Reformation): 최근 마치 15년 전에 돌풍을 일으켰던 빈야드 운동과 유사 △인터콧(대표 최바울): 공격적인 선교방법으로 인해 가는 곳마다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특히나 교회에서 비전스쿨을 하고 나면 교회가 잠음이 생긴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일명 안식교): 연장교육으로 아주 상세하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집중 강의를 했다. (기사제공: 미주기독교이단대책연구회)

뉴욕권사합창단 제 11회 정기연주회 성료

뉴욕권사선교합창단(단장 이은사, 지휘 양재원) 제 11회 정기연주회가 지난 11일 "영광, 할렘루아"라는 주제로 퀸즈중앙장로교회(담임 안창의 목사)에서 열렸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안토니오 비발디의 '글로리아'로 특별 준비했으며 소프라노 유필봉, 알토 박영경 씨와 협연했다.

씨즌, 파이프오니아 21과 MOU

씨즌(대표 문석진 목사)은 지난 달 30일 파이프오니아 21(대표 김상철 목사)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각 사의 기사, 사진, 영상 등의 콘텐츠 등을 상호 활용하며 홍보협력 등 다각적인 사업 분야에 대해서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파이프오니아21(www.pio21.net)은 추수감사절, 성탄절, 부활절 등의 절기에 맞춰 영상설교를 위한 자체제작 콘텐츠를 씨즌의 기독교인터넷신문 기독교뉴스(www.kidoknews.net)를 통해 뉴욕일원의 목회자와 선교사들에게 보급할 예정이다. 한편 파이프오니아21은 첫 번째 선교영화 '잊혀진 가방'에 이어 내년 상반기 중 화제를 몰고 올 영화 '중독'을 선보일 예정이다. '중독'은 마약, 알코올, 도박, 성, 인터넷 등 전 세계의 심각한 이슈로 등장한 중독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미국, 영국, 스페인, 인도, 한국 등 5개국에서 촬영한 로드다큐멘터리 영화다. ▲상영 문의: (347)538-1587 문석진 목사

www.sbm.or.kr

크리스천이 아대로 살아가는 안됩니다. SBM이 처방을 제시합니다.

SBM총재 황 의 영 박사

SBM의 3대 목표

1. 말씀의 신앙화 From Scripture to Faith
2. 신앙의 생활화 From Faith to Innovated Life
3. 생활의 문화화 From Innovated Life to Cultural Impact

S.B.M. 기독교 생활개혁신공부부 THE HEADQUARTERS OF SON BAL MOVEMENT

서울(02)564-3191, Fax. (02)564-6933 E-mail : sbm01@hotmail.com

미주크리스천신문 아이폰 앱 Application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성령 바른선교를 자랑하는 미주크리스천신문이 아이폰용 앱을 출시했습니다. 이제 어디서나 미주크리스천신문에서 제공하는 전체뉴스와 칼럼을 구독하실 수 있으며 미주내 동역원 교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미주크리스천신문은 45개국의 선교사님들을 후원합니다. 신문보내기 후원을 통해 귀한 선교에 함께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기능 및 구성

- 전체뉴스
- 칼럼
- 교회검색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어플을 이용해서 앱을 다운로드 해보세요.

미주크리스천신문

New York Kom Tang

24시간 오픈

교포사회적 등대 주일은 쉽니다

문의: 32 W. 32nd St., New York, NY 10001 Tel. 212-947-8482

뉴저지: 329 Bergen Blvd Palisade Park, NJ 07650 Tel 201-348-0201

Yoo Travel!

유 여행사

항공권 전문 도매 대리점

아시아나 · 대한항공 서울행 초 특가 요금 판매

Tel. 718. 463. 9500 / Fax. 718.463.7231

136-95 Roosevelt Ave., 2 Floor Flushing, NY 11354

adidas

태권도 검도 수술장비 전문업체

DYNAMICS 다이내믹스

www.dynamicsworld.com

교회 로고프린트 티셔츠50벌 이상 \$5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타월

광고배너 / 교회배너 제작

T. 516.354.8484 F.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NY Christian Guest House

뉴욕선교사의집

www.nycgh.org

5대양 6대주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편안한 침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sunnyusany@yahoo.com

35-74 162 St, Flushing NY 11358

347.732.9459

부산서 첫 '나라와 교회위한 119기도대성회' "한국교회, 같보리 십자가로 희망·생명 제시해야"

부산지역 성도들이 '나라와 교회'를 위한 119 기도대성회를 갖고 부산지역 부흥회는 12월 대통령 선거를 위해 간구했다. 9일 부산 사직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기도회에서 참석자들은 부산기독교교회관과 기독교 역사관 건립, 부산 발전과 가덕 공항 유치, 대통령 선거, 북한동포 문제 등 지역 교계와 사회, 국가, 민족이 풀어야 할 현안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다.

조 목사는 극한 정쟁과 경제적 위기 등으로 공허한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같보리 십자가로 희망과 생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교회가 예수 안에서 연합하고 기도에 집중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지금의 한국사회가 겪는 분열과 대립은 창세기 때의 공허함, 혼돈과 다를 바

없다"면서 "개인 가정 기업 사회가 깊은 공허와 혼돈에 빠져들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설명했다.

조 목사는 "성령이 임하시면 창조와 가능성이 넘치고 죽음은 생명으로 변화된다"면서 "이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면 새로운 가정 교회 국가가 되기에 성령을 모셔들이고 받아들이고 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교회가 세속화를 경계하고 철저한 회개, 연합 일치를 통해 사회의 빛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최 측은 '나라와 교회'를 위한 부산 그리스도인 공동 기도문을 발표하고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알려진 부산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간구하며 성도들이 기도와 전도, 성장과 부흥을 위한 신실한 제자들로 거듭 나도록 기도하자"고 다짐했다.

성회는 부산기독교총연합회 부산 성서회운동본부 부산홀리클럽 등 17개 단체가 공동 주최했다. 이날 행사는 신약 선배들이 한국전쟁의 위급한 상황에서 부산 초량교회에 모여 구국기도회를 가졌던 것처럼 부산의 1800개 교회, 40여만 성도가 하나 돼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대회장을 맡은 부산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윤종남(부산 순복음금정교회) 목사는 "성회에서 부산지역 성도들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고통 중에 있는 북한 동포와 찢어진 주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했다"면서 "특히 대통령 선거에서 겸손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선출되도록 간구했다"고 말했다.

성회에는 정필도 부산성서회운동본부 이사장, 장성만 21세기포럼 이사장, 황우여 새누리당 의원, 허남식 부산시장 등 교계와 정관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주요교단 정책 탐구 (4) 예상 대신

예상 대신(총회장 황수원 목사) 교단은 올해 설립 51주년을 맞았다. 대신 교단은 현재 국내외 44개 노회와 2196개 교회가 있는 중형 교단으로 성장했다. 또한 19개 권역 56개국에 253개성 492명의 선교사를 파송해 장로교단 중 세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교단이 됐다.

대신 교단은 설립 이전부터 선교와 깊은 관련이 있었다. 1950년대 한국장로교회 분열시대 이후 후발 주자로 출발했지만 교단 설립자인 김치선 목사는 그의 양부 영재형(L. Young) 선교사의 깊은 선교적 영향을 받았고 그의 도움에 힘입어 일본과 미국의 유학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한편 총회는 교단 성장을 위한 새 청사진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135운동'과 '교회부흥성장 20만 전도운동'이다. 총회 임원과 구성원들은 최근 이 운동을 활발히 전개해 교단 성장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황수원 총회장은 "대신 교단의 정통성과 끈끈한 자생력으로 다져진 힘을 결집해야 한다"며 "교단의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하고 성숙한 총회, 이 민족의 장래와 한국교회의 미래를 책임지고 주도해 나가는 대신 교단

예상 대신 교세 현황	
교회	2196개
노회	44개
목사 수	2927명
교인 수	46만 4명

(자료 : 예상 대신 총회)

개 교회를 상대로 전도훈련을 시켰다. 앞으로 각 교회 지원을 매달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올해 수료자 중 30여 교회를 선별해 내년에도 지속적인 후원에 나선다. 이 운동은 대신 전 총회장인 박재열(서울 동선교회)

반세기 역사...국내·외 2196개 교회 거느린 중형 교단 '135 운동' '20만 전도운동' 2대 핵심 정책 전개 계획

을 통해 세계 신학과 교회 선교의 흐름을 파악했다. 광복 후 1948년 정병받은 서울 남대문교회 목회에서 "2만8000여 동네에 가서 우물을 파라. 한국 민족의 300만 구령운동을 세계를 섬기자"는 그의 메시지가 이를 반증한다.

대신 교단은 소위 '자생교단'으로 불린다. 한국장로교회의 분열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여파로 대한신학교 졸업생의 진로 문제와 대한신학교가 직면했던 어려운 상황들, 그리고 정치사회적 상황이 중립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누구도 의도하거나 계획한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역사를 섭리하시는 분은 한국장로교회 안에 새로운 교단을 설립하게 했고 그 교단을 통해 한국장로교회 정통 신앙의 한 축을 이끌어가도록 했던 것이다. 즉 대신 교단은 신학적 혼란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신학적 입장을 분명하게 천명하면서 한국교회 안에서 정통신학의 계승을 자처하는 '작지만 강한 교단'으로

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대신 교단은 '135운동'을 활발히 펼칠 계획이다. 교단 설립 100주년이 되는 2061년까지 1만 교회, 3만 기도 헌신자, 500만 성도로 성장하기 위한 비전 선포다. 특히 교단사람 '3만 기도 헌신자' 운동을 전개해 총회와 노회, 그리고 지교회에 하나의 동맥으로 연결되는 '기도혁명'을 이를 계획이다.

대신 교단은 '교회부흥성장 20만 전도운동'도 병행하고 있다. 현재 46만여명의 교인 수를 20만명 더 전도하겠다는 것이다. 노회별로 전도 목표를 세우고 또 노회는 사찰별로 전도목표를 세워 전도를 통한 구체적인 전도운동으로 결실을 맺고 있다.

이 운동은 특히 작은교회살리기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수평이동을 통한 교회 부흥이 아니라 한 축을 이끌어가도록 하자는 취지다. 미자립 교회가 자립 교회로 부흥될 수 있도록 소정의 후원금을 전달하고 전도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130개 교회를 포함해 지난 10년 동안 모두 1052

목사가 자비량으로 4억9000만원을 기부해 교단 부흥에 귀감이 되고 있다.

총회는 이밖에 경기도 안양시 안양동 총회회관의 마무리 작업, 즉 헌당을 목표로 삼고 있다. 총회회관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세례교인 1인 1만원 운동'을 벌이고 있다.

총회는 신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지혜를 모으고 있다. 교단의 내실 있는 성장을 기하기 위함이다.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과 안양 석수동 대한신대학원대학교 총회신학교 등 총회 산하 신학교 3개를 일일화하는 문제가 총회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한편 대신 총회는 지난 9월 총회에서 한국교회연합(한교연·대표회장 김요셉 목사) 전 총회를 결의했다. 예상 대신의 기층위원장인 김요셉 목사는 지난 3월 창립한 한교연의 대표회장을 맡고 있다. 총회는 그러나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황재철 목사)에 대해서는 행정비류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여성목회자에 대한 편견 여성도가 가장 많아

장신대원 교수·학생 설문조사

신학대학원 교수와 신대원생 10명 중 4명은 "교회 내 여성들이 여성 목회자에 대한 편견을 가장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곡의 장로신학대 기독교교육과 교수는 지난 5-6월 장신대 신대원생(428명)과 신대원 교수(46명) 등 모두 474명을 대상으로 '여성 목회자에 대한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지난 7일 서울 광장동 장신대에서 열린 '여성 목회자 후보생 교육·진로 공청회'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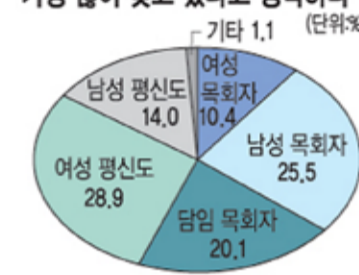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 목회자에 대한 편견을 누가 가장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냐'는 질문에 '여성 평신도'를 꼽은 응답자가 28.9%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남성 목회자(25.5%)와 '담임 목회자(20.1%)', 여성 평신도(14.0%) 순이었다. 특히 여성 평신도를 포함한 '여성 목회자

(10.4%)'를 꼽은 응답률이 39.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여성 목회에 대한 교회 여성들의 인식 전환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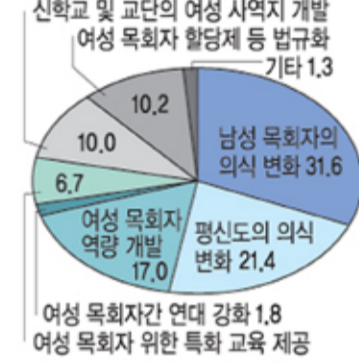
현재 신대원 교육과정에서 여성 목회자에게 필요한 역량을 개발시켜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절반가량(49.6%)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그렇다'는 응답은 12.2%에 그쳤다. 여성 목회자들의 역량 개발을 위해 필요한 과제로는 여성 목회 후보생을 위한 특화된 교육과정 신설(28.1%), 교회 연계형 교육과정 설립(27.9%) 등이 상위를 차지했다. 이 밖에 신대원생들이 졸업 후 희망하는 진로는 '교회 파스트리 및 대학원 진학'(26.2%)이 가장 많았고, 교회 전임사역(25.1%), 교회 밖 기관 전임사역(16.6%) 등이 뒤를 이었다.

양 교수는 "여성 목회자 문제는 신학교나 교단, 교회의 어느 한 영역만이 노력한다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면서 "개인과 교회, 신학교, 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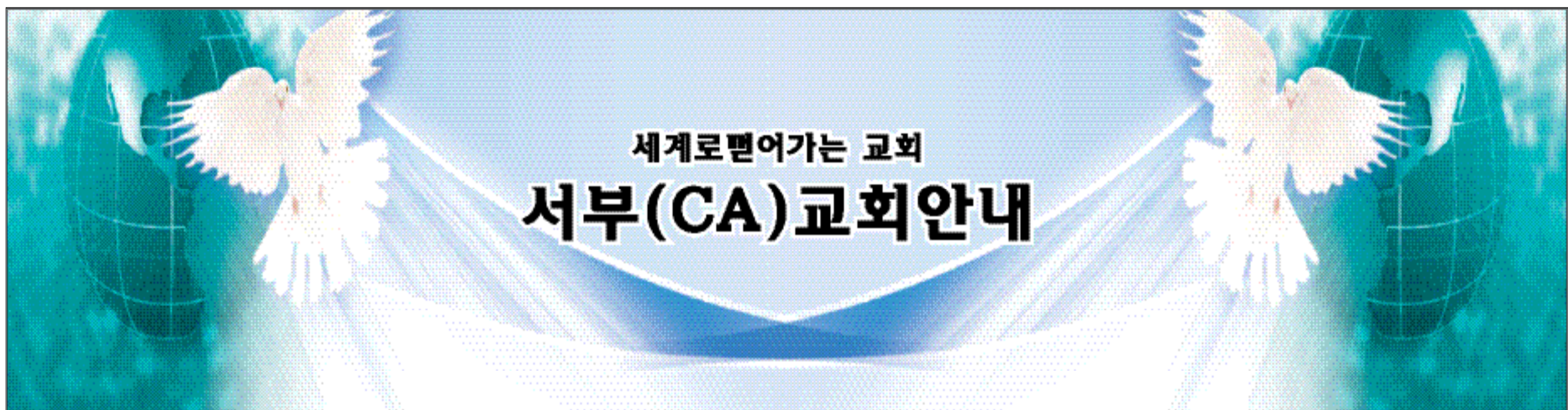
여성 목회자에 대한 편견을 누가 가장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나



여성목회자의 차별·제한없는 사역을 위해 필요한 과제는



단 등 모든 영역이 함께 공동의 전략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김영길 주일 1부 예배: 오전 7:45 주일 2부 예배: 오전 9:45 주일 3부 예배: 오전 11:45 목회자 세미나: 오후 2:30 목회자 세미나: 오후 7:30	남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 예배: 오전 7:45 주일 2부 예배: 오전 9: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목회자 세미나: 오후 2:30 목회자 세미나: 오후 7:30	남성영민문교회 담임목사: 박희성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9: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목회자 세미나: 오후 2:30 목회자 세미나: 오후 7:30	남성영락교회 담임목사: 박희민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9: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목회자 세미나: 오후 2:30 목회자 세미나: 오후 7:30	남성서부교회 담임목사: 이경현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목회자 세미나: 오후 2:30 목회자 세미나: 오후 7:30	남침반교회 담임목사: 민경철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목회자 세미나: 오후 2:30 목회자 세미나: 오후 7:30	남가주든든교회 담임목사: 김병현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목회자 세미나: 오후 2:30 목회자 세미나: 오후 7:30
남가주리더교회 담임목사: 김요셉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목회자 세미나: 오후 2:30 목회자 세미나: 오후 7:30	남가주사방교회 담임목사: 노정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9:1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10 목회자 세미나: 오후 2:30 목회자 세미나: 오후 7:30	대동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2:30, 1:00 목회자 세미나: 오후 2:30 목회자 세미나: 오후 7:30	동문교회 담임목사: 최백우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목회자 세미나: 오후 2:30 목회자 세미나: 오후 7:45	동양선교회 담임목사: 박형은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9: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목회자 세미나: 오후 2:30 목회자 세미나: 오후 7:30	디아스포라선교회 담임목사: 최영진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목회자 세미나: 오후 2:30 목회자 세미나: 오후 7:30	드림교회 담임목사: 이성현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목회자 세미나: 오후 2:30 목회자 세미나: 오후 7:30
삼성장로교회 담임목사: 신현규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목회자 세미나: 오후 2:30 목회자 세미나: 오후 7:30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희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9: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목회자 세미나: 오후 2:30 목회자 세미나: 오후 7:30	미주 평안교회 담임목사: 송경희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45 주일 3부 예배: 오전 12:45 목회자 세미나: 오후 2:30 목회자 세미나: 오후 7:30	매달인교회 담임목사: 손연식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9: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목회자 세미나: 오후 2:30 목회자 세미나: 오후 7:30	민쿠버미라벨리아교회 담임목사: 임건택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목회자 세미나: 오후 2:30 목회자 세미나: 오후 7:30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상범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목회자 세미나: 오후 2:30 목회자 세미나: 오후 7:30	브리지교회 담임목사: 장성재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목회자 세미나: 오후 2:30 목회자 세미나: 오후 7:30
세계비전교회 담임목사: 김병현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목회자 세미나: 오후 2:30 목회자 세미나: 오후 7:30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목회자 세미나: 오후 2:30 목회자 세미나: 오후 7:30	인디우장로교회 담임목사: 지용성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2:30, 1:00 목회자 세미나: 오후 2:30 목회자 세미나: 오후 7:30	일배인침례교회 담임목사: 함중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9: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목회자 세미나: 오후 2:30 목회자 세미나: 오후 7:30	오렌지카운티침례교회 담임목사: 임영민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목회자 세미나: 오후 2:30 목회자 세미나: 오후 7:30	오션선교회 담임목사: 정상호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목회자 세미나: 오후 2:30 목회자 세미나: 오후 7:30	윌셔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임규서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목회자 세미나: 오후 2:30 목회자 세미나: 오후 7:30
온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9: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목회자 세미나: 오후 2:30 목회자 세미나: 오후 7:30	인랜드교회 담임목사: 박신철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9: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목회자 세미나: 오후 2:30 목회자 세미나: 오후 7:30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2:30 목회자 세미나: 오후 2:30 목회자 세미나: 오후 7:30	창대교회 담임목사: 이준근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목회자 세미나: 오후 2:30 목회자 세미나: 오후 7:30	코너스톤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목회자 세미나: 오후 2:30 목회자 세미나: 오후 7:30	로렌스조운교회 담임목사: 김기환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목회자 세미나: 오후 2:30 목회자 세미나: 오후 7:30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323)585-0009 Fax: (323)585-0048 N.Y.: (718)939-4000 Fax: (718)939-4074



가정사역 칼럼

이혼에 대한 연구 결과의 보고



김정진 사모 (FBM 디렉터)

대부분의 부부들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 힘들 때 또는 서로의 의견이 다를 때, 의사소통이 잘되지 않을 때 기대에 어긋날 때 "이혼해", "우리 잘못만났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곤 한다.

이런 극단적인 말이 오가는 처음에는 그 말에 대해 그리 신경을 쓰지 않다가도 반복적으로 들다보면 점점 그 말을 신뢰하게 되고 이혼을 준비하려는 태도를 갖게 된다. 왜냐하면 그 말을 하거나 듣거나 하면 우리 뇌에서는 벌써 그것을 그대로 실행에 옮기려는 준비를 한다고 언어 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관계에 있어서의 극단적인 말들은 절대로 삼가야 한다. 마치 가정 안에 잡초의 씨를 심는 것과도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적절히 인내하고 노력하면 부부의 갈등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고된 바 있다. 미국 내 한 연구소(AV: Institute for American Value)에서 미 전국의 부부 5,232쌍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부부생활이 원만치 못하더라도 이혼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 상당수의 가정이 5년 이내에 행복을 되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만치 못한 부부, 결혼생활 유지하면 80%가 5년 내 행복 커플멘토 통한 의사소통기술, 갈등해결기술 등 도움 효과적

인종과 나이 경제적 수준을 총망라하여 실시된 이 조사는 13가지 심리적 기준을 근거로 실시되었는데 이들 중 자신의 결혼이 불행하다고 답한 경우가 645쌍이었고 그들 중 167쌍이 5년 내에 이혼하거나 별거로 결혼 생활을 마감했으며 나머지 478쌍은 결혼 생활을 그대로 이어갔다. 그런데 5년 후 다시 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별거나 이혼한 경우는 50%정도만 안정과 행복을 회복했다고 답한 반면, 불행하게 느꼈던 478쌍 가운데 80% 이상이 5년 이내에 다시 행복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보고했다. 그렇게 회복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대표적으로 열거한 이유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자녀가 자라고 직장 생활이 안정되면서 기존의 심각한 불만이 점차 사소하게 여겨질 만큼 부부관계가 성숙하게 되었다.

둘째는 문제 해결을 위해 부부가 더 많이 노력하고 대화를 시도하였다.

셋째는 여러 가지 대안을 통해 개인적 행복을 추구함으로써 싫증 난 결혼 생활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연구가 말하는 것은 결혼생활의 갈등에 대한 치유책은 결코 이혼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에 "사랑은 인내하는 것"이라는 말씀이 적합한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오랜 동안 부부들의 문제를 도와온 저희의 경험으로는 부부갈등이 생길 때 그 갈등 상황에 적절히 개입해 줄 수 있는 '커플 멘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행히도 커플 멘토가 갈등 있는 부부를 적극적으로 지도하며 도와줄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혹시 그러한 역할이 되지 않더라도 어려움에 처한 부부의 고통을 들어주고 그들과 함께 공감해주며 최소한 더 상대가 나빠지지 않게 지탱해 줄 수만 있어도 좋다.

다시 말해 어떤 특별한 처방을 해주지 않더라도 그들과 함께 그 길을 가며 고비를 넘기는 것만으로도 부부의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연구결과에서도 살펴볼 수 있었던 것처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다보면 여러 요인들로 관계가 다시 좋아 질 수 있

다는 말이다. 그러나 커플 멘토 훈련을 받은 분들의 도움을 받으면 더욱 좋다. 다뤄야 할 주제들은 의사소통기술, 갈등해결기술, 여가활동, 가정경제, 부부의 역할, 성, 가족 및 친구관계 등일 것이다. 이러한 주제들을 한 달에 한번 또는 2주에 한번 만나 한 가지 주제씩을 다루면 된다. 식사만담을 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도움을 받는 커플들은 약속된 시간에 멘토 커플을 만나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어야 한다는 좋은 부담감 속에 함부로 서로를 대하지 않게 된다.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다. 그러나 예수 안에 담이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커플 멘토에 대한 준비를 조금만 하게 되면 많은 가정들을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 3-4세대가 변질되는 가정으로 인한 열매를 먹지 않을 수 있도록 막는 것이 될 것이다.

▲이메일: familykum@gmail.com

매일가정예배

전 화령 목사(브니엘장로교회)

월 복을 누리는 자 (잠14:20-35) 찬252장

사람들은 무엇을 더 많이 받아야만 된다고 말하는데 주님은 이미 받은 복을 계수하고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요? 첫째, 영적부요를 이웃에게 나누어줌으로서 누릴 수 있습니다(20-24). 부요자는 (1)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겨야합니다(공출)(21), 선을 도모하는 자(선)(22), 입술로만 말하는 자가 아니라 실행하는 자(수고)(23) 자기 재물을 허비할 줄 아는 자(구제)(24)에게 친구가 많이 생기고(20) 복이 임하며(21) 인자와 진리의(22) 놀라운 유익이 찾아

옵니다(23). 둘째, 여호와 경외를 배움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경외신앙 곧 믿음의 삶에는 반드시 생명의 샘(27), 견고함(26), 그리고 왕적 영광(28)이 따릅니다(창 1:28). 그러나 이 신앙을 따르지 않는 모든 삶의 영광은 빈 껍질처럼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이미 그 세계에 들어와 있는 우리 가정은 경외심을 지키기 위해 수고함으로 복을 누릴 줄 알아야합니다.

화 생명 길을 경영하라 (잠15:1-18) 찬246장

생명길이란 생명을 길에 비유한 말인데 요14:6에 예수님을 길이라 했고 마7장에는 우리 앞에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 이 놓였다고 말합니다. 첫째, 생명 길은 두 가지 특징을 갖습니다. 하나는 운유입니다(18).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는 말씀대로 생명을 가진 자는 운유해야합니다. 다른 하나는 근면입니다. 19절에 게으른 자는 가시울타리가 길에 있지만 정직한 자는 대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생

명의 길을 아는 자에게만 나타나는 은혜입니다. 둘째, 이 길에는 경영이 필요합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22)고 한 것은 그 길은 수고를 통해 얻는 길임을 보입니다. 셋째, 생명 길을 바로 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세 위가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21절, 명철자는 미련한 길을 바르게 하며 23절, 맞는 인생을 산다고 했습니다. 딱 맞는 인생은 바로 이 길을 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수 피조물의 영광 (잠15:19-33) 찬175장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잠15:33) 기독교의 최고의 덕이 겸손인 것은 생활경험에서 나온 교훈이전, 하나님이 처음부터 구조적으로 허락한 길입니다. 어떤 점에서 겸손이 최고의 덕인가요? 첫째, 여호와 경외심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 다하여 하나님과 구분 없이 안하무인식으로 사는 것은 빛바랜 옷과 같습니다. 교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결코 생겨지지 않

니다. 둘째, 참된 지혜가 나오는 출처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지혜란 모든 생활방면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 내는 삶을 가리킵니다. 교만은 "자기, 자기" 하다가 제 대로 꽃 하나 피어보지 못하고 눈 녹듯이 사라지게 합니다. 셋째, 피조물의 존귀함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겸손이 피조물의 면류관임을 아는 자는 제대로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신분을 잘 알아 언제 어디서나 겸손 일관하여 약속된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됩시다.

목 하나님의 주권 (잠16:1-17) 찬23장

인생을 바르게 경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하나님이 바른 경영을 원하심을 알아야합니다(15: 22,16:1). 바른 경영은 모든 방면에 하나님의 경외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계획을 가리키며 철저 하게 하나님경륜의 근거인 그의 사랑과 진리에 기초 해야 합니다. 둘째, 사람이 무엇을 계획해도 하나님이 친히 이루 심을 알아야합니다(1).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

신 경영을 믿어야 합니다. 롬8:28에 보인대로 우리의 모든 일이 합력해 선을 이루심을 확신해야 한다 는 것입니다. 하나님나라는 이런 경영을 통해 이루어 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계획해도 하나님이 이루심을 믿는 우리는 그의 뜻을 전적으로 의지하 며 나아가야 합니다. 주께서 속히 말씀을 보내 구해주시실 것입니다.

금 겸손의 도 (잠16:18-33) 찬347장

겸손의 도를 가는 자란 어떤 자이며 겸손의 길을 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첫째, 겸손의 도를 가는 자란? 18-20절에 겸손에 대해 말하며 21-25절에는 지혜에 대해 말하기를 겸손이란 마음의 지혜로움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21). 겸손자란 지혜 를 생명의 샘으로 삼는 자이며(22) 지식있는 입술을 가진 자이며(23) 양약과 꿀 송이와 같은 선한 말을 가진 자입니다(23). 겸손이란 생명의 길이며(25) 여호와

를 함으로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반응입니다. 둘째,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란? 교만이 패 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이 넘어짐의 앞잡이라면 겸 손한 마음은 성공의 선봉이요 겸손은 일어섬의 앞잡이 라는 말입니다. 교만한 자의 정복(탈취)보다 겸손한 마음이 더 복됩니다. 성령받은 신자는 성령의 인도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겸손의 도를 따릅니다.

토 마음의 연단 (잠17:1-14) 찬441장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나 여호와 는 마음을 연단하느니라"(잠17:3). 순수한 은금을 얻기 위해 그것을 도가니와 풀무에 넣어 불순물을 제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여호와와 경외하 는 자를 마음의 연단을 위해 반드시 고난의 구덩이에 넣으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 진정한 경외신앙을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시편기자는 고난이 자기에게 유익 된 것은 고난당하기 전, 그릇 행한 것이 고난 후 바른

길로 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옴의 애매한 고난은 그를 정금처럼 만드는 기간이었고 요셉이 당한 고난 은 그를 통해 하나님나라를 이루는데 기여하는 도구가 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는 반드시 감당 할 수 있는 고난이 허락됩니다. 연단을 받게 하려는 것이지요. 일부러 고난의 구덩이에 들어가는 금옥주의 는 비성경적이지만 주를 위해 받는 섭리적 고난은 어떤 것이든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세미나

라홍채 목사의 신간서적 안내

구약과 신약

본서는 성경 말씀을 읽어하면서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조망해 주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과 성경의 메시지를 짧은 시간 안에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성경 66권을 총망라하여 주요 성경구절들을 목상하면서 성경의 핵심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게 되고, 성경 각권의 핵심을 통해 한눈으로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인목을 갖게 해준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나타나는 그분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말씀을 통해 깨닫고 체험함으로써 믿지않는 자는 성 도에게 바른 신앙을 정립시키고 영혼 구원에 대한 사랑을 고취시켜 준다. | 1면 30원 13000원 / 2면 30원 13000원

지금 이 시대의 말씀

본서는 요한계시록을 비롯하여 여러 성경말씀을 토대로 하여 현재 크리стен들의 갈지는 신앙을 일깨우는 예언의 메시지와 경 고의 말씀을 담고 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에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으며, 마지막 시대의 징조는 무엇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도 의 자세는 어떠한가 하며, 이 시대 마지막 사역은 무엇인지에 대해 성경말씀을 통하여 상세히 가르쳐 주고 있다. 어떤 시대가 난무하고 교회가 세속화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현 시대에 성도들이 거룩한 영성을 회복하고 교회에 사랑을 온전케 감당할 수 있 도록 인도하는 안내서이다. | 412면 14000원

참심 이레

시적이 있으면 골이 있으면 이 세상도 분명히 끝나는 날이 오 는데 바로 참심 이레가 되는 날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다니엘 9장 24절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참심 이레로 기 한을 정하였나니'라는 말씀을 근거로 참심 이레가 도래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계 19:11-21) 이 세상은 골이 난다는 것이다. 알 수 없는 미래의 하에 어떤 사람들이 중량의 띠를 띠 면서 살고 현실 세계에 무어 이루어 생각 없이 허송세월하며 살 고 있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하여 마지막 때 이 세상의 끝 날에 대하여 새롭게 인식 하고 중량을 준비하는 신앙을 다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 195면 6000원

라홍채 목사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졸업(학사)
- 미국 메리코 석유회사 13년 근무
- 미국 휴스턴 신학교
- 미국 베다니 신학교 석사과정 수료
- 미국 베다니 신학교 박사과정 수료
- 미국 베다니 신학교 신학박사(M.A)
- 뉴욕으로 이주, 뉴욕만민교회(복음) 조사연구/ 평가자로(제4차)
- 현 뉴욕만민교회(복음) 담임
- 저서: 한국적 영혼관(아시아 지역연구원(역주))
- 조사연구평가자료/서해바다원음(복음) 조사연구/ 평가자료(제4차)



목회자와 신학생, 평신도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성경 신구약과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을 단 이틀에 통달할 수 있으며 지금 이 시대를 준비하고 이길 수 있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복음을 알고자 하십니까? 성경을 빨리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 전도자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시간: 2012년 12월 4~5일 오전 10시(부담~오후 4시)
 식사 및 음료 제공 / 회비 1인당 7만원(해 4명 교재 1권 파워포인트 포함)
 강사: 라홍채 목사
 장소: 백주년 기념관 제1연수실
 Email: andy71@gmail.com
 주최·신청: 문림출판사 (02-747-1004)

한국 세미나 일정 및 교육 시간표 (2012년 12월 4~5일)

제1일차 2012년 12월 4일		제2일차 2012년 12월 5일	
오전 세미나	오후 세미나	오전 세미나	오후 세미나
구약 제1강	신약 제1강	참심 이레 제1강	계시록 제1강
오전 10:00-11:00	오전 10:00-11:00	오전 10:00-11:00	오전 10:00-11:00
10분 휴식	10분 휴식	10분 휴식	10분 휴식
구약 제2강	신약 제2강	참심 이레 제2강	계시록 제2강
오전 11:10-12:10	오전 11:10-12:10	오전 11:10-12:10	오전 11:10-12:10
점심시간	1일차 종료	점심시간	2일차 세미나 종료
12:10-1:00		12:10-1:00	

다민족 열린 음악회를 꿈꾸며....

이우진 권사 (울림선교합창단 총지휘)

지난달 21일 제 6회 정기연주회를 성황리에 마친 울림선교합창단. 이 합창단을 총지휘하며 이끌어가고 있는 이우진 권사가 본사를 방문, 내년에 있을 다민족 열린 음악회를 소개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라고 말씀을 여는 이우진 권사의 찬양사역의 역사는 1990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22년 전에 시작을 했지만 5-6년간 잠시 활동을 쉬다 지난 2005년 다시 사역을 부활시킨 이우진 권사는 “불신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찬양이라는 사명감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며 “찬양을 통해 불교에서 삼천배를 하던 사람이 교회에서 헌신하는 모습이 나 암으로 사망선고를 받고 절망 가운데 있던 이들이 새롭게 변화되고 회복되어 교회를 섬기는 모습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제 울림선교합창단은 교민들뿐만 아니라 타 커뮤니티를 섬기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그 한 예로 울림평경철서를 돕고 미래 경관이 되고자 하는 청소년들을 적극 후원하게 된 것이다. 그 훈련생들은 다민족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경찰학교를 마치고 일주일에 세 번씩 경찰서에서 훈련을 받고 있

는데 이들을 울림선교합창단이 1만 달러를 후원하기로 하고 이번 연주회를 통해 전달했다. 이렇게 관계가 형성되자 이번 연주회 때 이 훈련생들이 미국국기와 태극기를 들고 입장해 커뮤니티와 하나됨을 보여주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이우진 권사에게 이번 공연은 특별한 공연이었다. 본인도 단원들도 모든 스태프도 생각지 못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공연도중에 오바마 대통령의 사회봉사상이 전달됐기 때문이다.

“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아마 15년 전부터 참전용사 위문, 양로병원 방문공연 등 그동안의 행보를 지켜보고 음악으로 사회에 덕을 끼친 일이라 생각한 모양입니다”라고 겸손을 표하



는 이우진 권사는 “이 상은 더욱 더 사회를 위해 일하라는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음악회는 좀 더 폭을 넓혀 흑인, 백인, 히스패닉, 아시아인 등 다양한 민족이 참여하는 ‘다민족 열린 음악회’로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사람이 주는 상도 기쁨을 주는데 하나님의 주는 얼마나 더 기쁘겠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위해 앞으로 더욱 더 열심을 내 보겠습니다.”라며 소감과 앞으로의 비전을 내비쳤다.

▲문의: (213)663-5183

본·사·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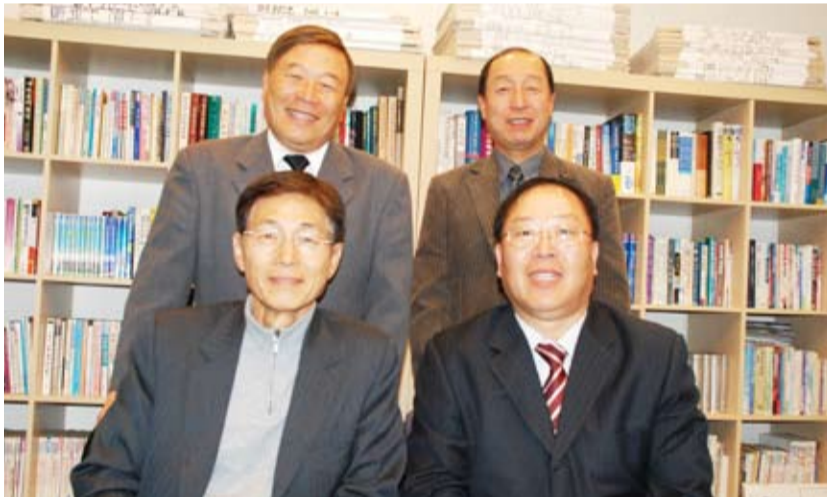
추수감사절 연합예배를 준비하는 연목회

오는 18일(주) 오후 6시 남성동산교회(담임 한기형 목사)에서 추수감사예배 및 찬양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연목회(회장 정요한 목사) 임원들이 12일 오후 본사를 방문했다.

초창기 청교도들이 추수감사예배를 드렸던 그 마음과 그 심정으로 돌아가 회복된 미국을 꿈꾸며 추수감사를 마련한 연목회는 “연합 예배를 준비한 것은 연목회 식구들만이 아닌 온 교민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기 위해 마련했다. 물론 개 교회에서 추수감사절로 드리지만 혹시 예배 참석을 못하신 분이나 관심 있는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13년 전 구성된 연목회는 지금까지 목회자특별세미나, 학술세미나, 친선골프대회, 음악회 등을 통해 회원 간의 믿음과 단결을 위해 활동을 해왔다.

함께 자리한 김영일 목사는 “연목회가 활성화돼 커뮤니티에 영적 영향력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커뮤니티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하



앞줄 우측 회장 정요한 목사, 부회장 김영일 목사, 뒷줄 우측 서기 김철 목사, 총무 고재원 목사

는데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 연목회를 오픈해서 예배를 광범위하게 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지요. 동문들도 일년에 한두 번 만나는 것 외에 기회가 없습니다. 이번 회원들 가족들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추수감사절 연합예배를 통해 나오는 헌금은 ‘햇빛재단’을 후원하게 된다.

▲문의: (213)487-3920 (이성자 기자)

감사의 계절... 전천후 신앙인 길러내자

2012년 추수감사절, 첫 번째 추수감사절 의미 통해 풍성한 감사 나눠야

〈1면에서 계속〉

척박한 현실을 견딜 만하게 해주는 것이 감사라면 다른 사람이 합겨온 상황을 견딜 만하게 해주는 것은 나눔이다. 추수감사절에 먹고 즐기는 잔치의 전통을 더해준 것은 인디언들이었다. 3일간 계속된 청교도들의 추수 축제에 인근의 왕파노악 인디언들은 수십 명이 동참하며 자신들의 추수 전통을 가져왔다. 인디언들의 고대 축제인 ‘니롬모(내어주기, 교환하기)’ 전통이었다. 인디언들은 그 전통대로 헐벗고 굶주린 백인 외지인들에게 먹고 마실 것을 나눠주며 추수의 기쁨을 함께 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수확은 사람들의 마음이다. 자신에게 마음 깊이 감사하는 사람 하나 없다면 황폐한 인생이다. 감사라는 마음의 열매는 배려와 나눔으로 얻어지는데 그 출발은 관심이다. 그리고 크리스천들에게 그 출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혜이다. 또한 모든 약한 권세들을 이길 수 있는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됐고,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해 온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으면서 살 수 있다. 이 은혜를 인식한다면 오늘 우리 삶의 모든 기반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감사해야만 한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감사하는 법을 잊어버렸다.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합당한 자세가 아니다. 받은 은혜의 귀중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제대로 인식한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있다고 할지라도 당당하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다보면 혼란스러울 때도 있고 활력이 넘쳐날 때도 있고 갈 바를 알지 못해 답답할 때도 있고 확신에 잘 때도 있고 앞길이 막막할 때도 있다. 청교도들의 첫 번째 감사는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우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감사(感謝)란 숙고(熟考)한다는 말에서 기원한다. 깊이 생각해보지 않는 곳에서

감사는 생겨나지 못한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경우를 당하든지 깊이 숙고해보면 그 속에서 감사할 이유와 원인이 발견된다. 신앙인에게서는 더할 나위 없다. 범사에 감사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못된다.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열려진 마음에서 그의 뜻을 분별하면서 사는 사람에게야 감사하는 마음은 생긴다. 철없는 어린아이들에게는 감사란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나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그 생각이 깊어질 때 비로소 효성을 발휘하게 되듯이 하나님께 향한 마음도 동일하다. 우리가 추수를 할 수 있어서만 감사해야 한다면 그런 단계의 감사는 미숙한 단계일 것이다.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없을 때 더욱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물질이 있을 때, 수확이 넉넉할 때만 감사한다면 그것은 신앙인의 감사는 아니다. 우리는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영혼의 구원에 대해 더 깊은 감사를 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이 교회에 보여주고 가르쳐야 할 사명이다.

감사란 추수감사절에만 하는 것이 아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어떤 때든지 하박국 선지자의 말처럼 ‘모든 여건에서 수확이 없다 해도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그런 신앙이 필요하다. 그것을 기초신앙으로 가르쳐야 할 몫이다. 우리 모두 감사의 계절에 전천후적 신앙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일에 함께 노력해야 한다.

경제는 회복 중이지만 우리의 주머니 사정은 여전히 팍팍하다. 실직한 사람들에게 활짝 취업의 문이 열릴 때는 언제일지 아직도 앞이 안 보인다. 그러나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신앙의 힘으로 사는 것이 지혜이다. 따뜻한 미소, 푸근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우울한 인생에 환풍기 햇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열(10)을 도울 수 없다고 도울 수 있는 하나(1)를 포기하지는 말아야 한다. 비록 물질적으로는 별로 거들 게 없는 추수절이라도 사람들의 마음밭에서 추수하는 감사의 열매가 풍성해야 한다. 마치 청교도들의 첫 번째 감사처럼...

〈편집부〉



BOOKSKOREA PRINTING & PROMOTION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인쇄물과 판촉물을 한 자리에서 제작 할 수 있는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사업부에서는 디자인에서 제작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완성하여 드립니다. (창립기념일,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부활절) 명함, 전단지, 브로슈어, 엽서, 스티커, 달력, 선물권, 헌금봉투, 전도지, 주보, 배너, 옥외 / 실내 스탠드배너, 전도용 작품제작 프린팅 단체 티셔츠, 타월, 토트백, 머그잔, 볼펜, 전도에 필요한 아이템에 모든것-



판촉물을 원하신다면 언제라도 방문하십시오.

상담 환영!!!

PARTY FAVORS

Happy Birthday Guest

WEDDING FAVORS

ISUS SAID COME TO ME

새가족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화 :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한인과
히스패닉 연합

초청 부흥대성회 및 목회자 교회 성장세미나

주강사

이영훈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



초청강사

연예인 특별간증



홍성욱 목사
(인양제일교회 담임)



이태근 목사
(여의도순복음
분당교회 담임)



송채환 집사
(선인중앙교회 집사)

일시

저녁부흥대성회

2012년 12월 2일 (주) - 3일 (월) 오후 6시30분

교회성장세미나

2012년 12월 3일 (월) 오전 10시~오후 5시

(등록비 20불, 다양한 사역자료 제공, 선착순 한인 150명)

* 저녁 집회 후 한인과 히스패닉을 위한 성탄절 사랑의 쌀 나눔이 있습니다
(교회와 봉사 단체를 위한 사랑의 쌀교환권 배부중)

장소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공동주최 :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OC기독교교회협의회, 남가주목사회

특별협찬 : CBS America, 미주복음방송 외 모든 기독교언론기관(Kcmusa.org에서 온라인 등록 가능)

한인주관 :  **미주성시화운동본부**
HOLY CITY MOVEMENT
500 Shatto Pl #315, LA, CA 90020

등록 및 문의처

Tel. 213-384-5232 / Fax. 213-559-7656

Happy Thanksgiving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찌어다 (시 105:1)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Tel. (323)913-4499 Fax.(323)913-4494

나성서부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Pico+Fairfax)

Tel.(323)939-7323 Fax.(323)939-1656

나성열린문교회

담임목사: 박현성

1925 Wilshire Blvd. L.A., CA 90057

Tel. (213)413-1600 Fax.(213)413-1911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경엽

8101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0

Tel.(714)826-6245 Fax.(714)826-6187

낙원장로교회

담임목사: 황영진

41-20 Queens Blvd., Sunny side, NY 11104

Tel. (718)482-7788 Cell.(917)349-5631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1645 Beverly Bl. L.A., CA 90026

Tel. (213)481-2779 Fax.(213)481-3761

남가주리디머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

Tel. (213)215-8523 Fax.(213)977-1183

남가주빛내리교회

담임목사: 박용덕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el. (714)401-9874 Fax.(562)947-1760

남가주왕성교회

담임목사: 안경찬

2500 Wilshire Blvd #700 L.A., CA 90057

Tel.(213)819-8811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Tel. (714)772-7777 Fax.(714)772-0777

남부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송성섭

3619 McKee Rd. Charlotte, NC 28270

Tel.(704)-841-0821 Fax.(704)841-1625

뉴욕갯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45-75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

Tel. (718)464-2295 Fax.(718)762-4693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40-05 Skilman Ave. Sunnyside, NY 11104

Tel. (718)361-9199 Fax.(718)361-9433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Tel. (516)295-7987 Fax.(516)883-1961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45-65 162 St., Flushing, NY 11358

Tel. (718)461-7835 Cell.(718)938-1777

뉴욕중부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252-00 Horace Harding Expwy. Little Neck, NY 11362

Tel.(718)279-2757,2758 Fax.(718)279-1823

뉴욕효신장로교회

담임목사: 문석호

42-15 166St. Flushing, NY 11358

Tel. (718)762-5756, 2525 Fax.(718)961-3111

뉴저지베다니교회

담임목사: 장동찬

491 Alps Rd. Wayne, NJ 07470

웨이:(973)694-3880 포트라:(973)694-3880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Tel. (201)342-9194 Fax.(201)943-5204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el. (702)579-7576 Fax.(702)257-9191

라스베가스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3825 Melody Ln. Las Vegas, NV 89108

Tel. (702)648-7994 Fax. (702)648-7057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37-57 104St. Flushing, NY 11368

Tel. (718)961-2171 Fax.(718)961-3631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Tel.(610)222-0691 Fax.(610)222-0692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Tel. (213)380-9377 Tel. (213)380-9078

미주 평안교회

담임목사: 송정명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Tel.(213)381-2202 Fax(213)381-2535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홍운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Tel. (215)945-1512 Fax.(215)945-2095

벤엘교회

담임목사: 진용태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Tel. (410)461-1235 Fax.(410)461-6823

벤엘장로교회

담임목사: 변영익

857 S. La Brea Ave. Los Angeles, CA 90036

Tel. (323)937-1733 Fax.(323)931-2836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전덕영

2 Main St. Hopkinton, MA 01748

Tel. (508)435-4579 Fax.(508)435-5467

브리지교회

담임목사: 장세정

1067 E. Badillo St., Covina, CA 91724

Tel.(626)339-6177 Fax.(626)967-3078

삼성장로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501 S. Idaho St. #200 La Habra CA 90631

Tel. (562)690-9800 Fax.(562)690-8044

사랏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701 Scaleybark Rd. Charlotte, NC 28209

Tel.(704)529-0900 Fax.(704)529-0998

세계비전교회

담임목사: 김영빈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Tel. (818)363-5887 Fax.(818)368-9883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Tel. (213)745-9191 사택.(818)893-8607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Tel.(206)527-0981 Fax.(206)524-1746

아가페선교침례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1635-A Palolo Ave., Hon., HI 96816

Tel. (808)735-0011 Fax. (808)732-5550

안디옥장로교회

담임목사: 지윤성

2720 Montrose Ave. Montrose, CA 91020

Tel. (818)249-2871 Fax.(818)249-0516

알칸사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Tel. (501)920-9049 사택:(501)425-5178

얼바인침례교회

담임목사: 한중수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el. (949)857-9425 Fax.(949)857-9472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용결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Tel. (215)542-0288 Fax.(215)542-9037

엘파소열린문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Tel. (915)755-1490 Fax.(915)751-4365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8220 Briarwood St. Anch., AK 99518

Tel.(907)344-6446, Fax.(907)344-3182

요셉선교교회

담임목사: 정상호

301 S. Kingsley Dr.2F-B L.A., CA 90020

Tel. (213)245-4090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Tel.(703)941-4447 Fax.(703)941-4448

주신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용익

188-12 72Ave Fresh Meadows, NY 11366

Tel. (718)310-7061 Tel. (718)310-7062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Tel. (804)560-7500 Fax.(804)560-7514

중부뉴저지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원호

445 Old Post Road Edison, NJ 08817

Tel. (732)310-0022 Fax. (732)537-9742

창대교회

담임목사: 이춘준

173 E. 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el. (909)388-2940 Fax.(909)338-2941

코너스톤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Tel. (310)530-4040 Fax.(310)530-8400

퀸즈한인교회

담임목사: 이규섭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Tel. (718)939-8599 Fax.(718)321-8805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박규성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040 Fax.(718)358-7789

필라안디옥교회

담임목사: 호성기

One Antioch Ave., Conshohocken, PA 19428

Tel. (610)828-6760 Fax.(610)260-1343

풍성한교회

담임목사: 박호우

291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8

Tel. (213)381-9490 Fax.(213)385-9191

하와이안디옥침례교회

담임목사: 우동식

99-400 Aiea Heights Dr., Aiea, HI 96701

Tel. (808)488-7552 H.(808)625-4479

하트포드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선만

30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

Tel.(860)643-4738 Fax.(860)647-0565

한미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운영

929 S. Westlake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 (213)739-8824 Fax : (213)739-8821